

선진 기술로 아시아 기상레이더 역량 향상 돕는다

- 아시아 4개국 대상 '기상레이더 운영기술 향상과정', 4년 만에 초청 연수 방식으로 운영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4개국의 레이더 담당자와 실무예보관 등 12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상레이더 운영기술 향상과정'을 6월 12일(월)부터 6월 23일(금)까지 2주간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운영해오던 국제 교육과정을 2019년 이후로 4년 만에 초청 연수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교육내용은 기상레이더 관측 전략, 기상레이더 관측 이론, 기상레이더 운영 및 유지관리, 기상레이더 자료 해석 및 활용 등이며, 국내 레이더기지 현장실습 및 견학을 포함하고 있다.

기상청은 국제개발협력(ODA¹) 사업의 하나로 1998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 개발도상국의 기상청 직원을 대상으로 국제 교육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과정을 수료한 외국인은 총 96개국 1,370여 명에 이르며, 기상청은 세계 기상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국제적 역할을 인정받아 2015년 세계기상기구(WMO²)로부터 아시아지역 기상훈련기관(WMO RTC³)으로 지정되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선진 레이더 운영 및 활용 기술이 아시아 각국의 기상예보 역량 향상과 위험기상 조기 대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1)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2)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3) Regional Training Centre (RTC)

붙임 외국인 기상레이더 운영기술 향상과정 입교식 사진

담당 부서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경립 (02-2181-0031)
		담당자	사무관	김은숙 (02-2181-0033)





| 입교식 기념사진 |